

운젠 온천 역사 탐방 코스 : 기독교와 분쟁

운젠 주변에는 머리가 없거나 후에 머리를 붙인 불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이는 운젠의 역사 속 격렬했던 종교 충돌을 방불케 합니다. 1549년 포르투갈 무역상이 화기나 비단뿐만 아니라 기독교 선교사를 데리고 가고시마에 도착했습니다.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일본인(농민, 무사, 영주까지도)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. 그 빠른 확산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, 이후 수십 년이 보여주듯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.

새로운 기독교의 신도들과 일본에서 확립된 두 종교, 신도와 불교 신도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. 시마바라 영주 아리마 하루노부(1567년-1612년)는 1579년 개종을 하자마자 곧 영토 내 신사 불각을 파괴할 것을 명했습니다. 이 일은 운젠의 전통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고, 서양에 의한 식민지화를 우려하던 것과 맞물려 기독교에 대한 반발이 거세졌습니다.